

## 관서·관북 지역의 시가 향유 양상

최재남\*

<차례>

1. 서언
2. 관북 지역 시가 향유의 성격
3. 관서 지역 시가 향유의 특성
4. 관서·관북 지역 시가 향유의 의미
5. 소결

### <국문초록>

관서와 관북 지역의 시가 향유를 살필 때 지역성을 중심에 두고, 담당층, 통시성이 아울러 논의될 수 있다. 한편 갈래 사이의 연관에 대한 검토도 중요한 과제로 제기된다.

2장과 3장에서 두 지역을 대비하면서 통시적인 측면에서 추이를 점검하였다. 관북 지역에서는 풍패의 자긍심과 <용비어천가> 전승, 무변 풍류의 양상과 기녀들의 역할, <철령가>의 파급과 또 다른 내면, 관북의 여정 소개와 그 반향, 현장의 삶과 관심의 추이, 유배 체험의 여러 양상 등을 살피고, 관서 지역에서는 백성 교화를 위한 재관인의 노력, 관서 여정 소개와 경승에 대한 관심, 조천·연행의 노정과 풍류의 반향, 역사적 사건에 대한 반응, 서도잡가의 전승 양상과 그 변이 등으로 나누어 고찰하였다.

4장에서는 이들 지역의 시가 향유가 지닌 의미를 통합적으로 검토하면서, 창작층과 향유층의 문제와 시가의 범주, 시가 전승의 주체와 매개, 조선 후기 시가 향유에서 관서·관북 무반의 연관 등을 검토하였다.

\* 이화여대 교수

**주제어** 관서, 관북, 서로, 북변, 시가 향유, 지역성, 담당층, 통시성, 무변, 기녀, 연행, 풍류, 여정, 체험

## 1. 서언

땅이 사람을 만들고, 사람은 문화를 만든다. 그러므로 같은 곳에 터를 잡고 살아가는 사람은 알게 모르게 공동의 문화를 향유하게 된다. 그리고 사람들이 이동하면서 그 문화가 교류하기도 한다. 때로 문화의 우월성을 말하기도 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교류의 과정에서 생기는 인식의 변화라고 할 수 있다.

관서와 관북은 조선시대 국가의 요충지로서 중요하게 인식하였다. 조선 초기 사군(四郡)과 육진(六鎭)의 개척과 함께 조선의 영토에 포함된 지역을 포함하여, 사대(事大)를 위한 노정에서 이 지역이 차지하는 위상이 강조되면서 여러 각도에서 다양한 정책이 제시되었다. 게다가 왜란과 호란을 겪으면서 전쟁의 참화를 겪었고, 명·청(明清)의 정체성에 대한 착종이 제기되기도 하면서 새로운 문제도 노정되었다. 그런데 백성을 잘 섬겨야 한다는 민본을 내세우면서도 이들 지역 생민(生民)들에 대한 진정한 관심은 한 발짝 비켜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관서와 관북의 문학을 말할 때 지역성이 중심에 놓이고, 담당층 문제와 통시적 측면이 아울러 제기된다. 물론 갈래 사이의 연관에 대한 검토도 필요할 것이다. 그런데 실제로는 담당층 문제가 초미의 관심사로 부각될 수 있다. 일상적인 경우라면 관서와 관북의 사람이 중심이 되어야 할 터인데, 실제 상황은 우호적이지 않기 때문이다. 관서와 관북 사람이 중심에 놓이기 보다는 이런저런 사정으로 외부에서 관서와 관북으로 이동한 사람이 창작을 하고, 때로는 그곳 사람들과 얽혀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

다. 이런 과정에서 무변(武弁)과 기녀(妓女)가 중요 담당층으로 부각하기도 한다.

지금까지 관서와 관북의 시가 향유 문제에 대한 연구는 관심의 대상에서 소외되어 있었다. 새로운 자료의 발굴과 함께 개별 작품에 대한 관심은 나타났으나, 관서와 관북 문학 자료의 실상이 어느 정도인지, 두 지역의 문학을 어떤 시각으로 접근할 것인지, 그리고 다른 지역의 시가에 대해서 보였던 관심과는 어떻게 연결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적었던 것이 사실이다.

논의의 진행은 관북과 관서로 크게 나누고, 각 지역을 대비하면서 통시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그 추이를 점검하도록 한다. 2장과 3장이 여기에 해당한다. 그리고 4장에서 이들 지역의 시가 향유가 지닌 의미를 통합적으로 검토하면서, 창작층과 향유층의 문제와 시가의 범주, 시가 전송의 주체와 매개, 조선 후기 시가 향유에서 관서·관북 무반의 연관 등을 살펴도록 한다.

## 2. 관북 지역 시가 향유의 성격

### 1) 풍패의 자긍심과 <용비어천가> 전승(傳誦)

관북(關北)은 마천령(磨天嶺) 북쪽 지방을 가리키는데 보통 함경도를 지칭하기도 한다. 그 중에서 함흥은 풍패(豐沛)의 땅이라 하여 <용비어천가>를 만들자 곧 하사하여 악부로 삼게 하였는데, 후대에도 <용비어천가>를 부르면서 제왕의 고향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게 하였다.

이석형(李石亨, 1415~1477)의 「문소루기(聞韶樓記)」에, 세종 29년(1447)에 함경도감사로 부임한 권맹손(權孟孫, 1390~1456)이 옛날 누정이

퇴락한 것을 보고 새로 누정을 지었는데, 마침 임금께서 함흥이 조종의 기업을 일으킨 땅이라 하여 <용비어천가>의 새 악부를 내린 사실을 기록하고 있다.<sup>1)</sup>

권맹손의 <문소루>의 경련에, “찬양한 악부를 풍패에 반포해 내리시니, 새 노랫말을 읊으며 관현에 올리네(贊揚樂府頒豐沛 歌詠新詞被管絃)”라고 하여, 관현에 올려서 널리 불리는 사실을 읊고 있다.

이후에도 <용비어천가>는 이 지역을 상징하는 것으로 매우 중요하게 인식되었다.

이서우(李瑞雨, 1633~?)의 <함산십이절>(『松坡集』권2) 다섯 째 수의 전·결구에, “밝은 달이 성에 가득하고 관현 소리 시끄러운데, 어린 아이들은 <용비어천가>를 같이 부르네.(明月滿城絃管鬧 小兒齊唱御天歌)”라고 보고하고 있으며, 김창흡(金昌翕, 1653~1722)은 <적지가(赤池歌)>(『三淵集』卷之十三)에서, “어릴 때에 기쁘게 <용비어천가>를 외웠는데, 흰 머리에 우연히 관문으로 나서는 나그네가 되었네.(兒時喜誦御天歌 白首偶作出關客)”라고 하여 <용비어천가>와 북관을 연결시키고 있다.

이외에도 정옥(鄭玉, 1694~1760)이 <함흥 차문소루운(咸興 次聞韶樓韻)>(『우천집』권2)의 시제 제주에서 <용비어천가>를 말하고 있는 것과, <선원전 차판상운(璿源殿 次板上韻)>(『우천집』권2)에서는, “해동의 천 년 뒤에는 응당 강물이 맑으려니와, 범도로 터를 열었으니 보력도 많아라. 지난 해에 또 용마루에 오른 날이 돌아오는데, 나라 사람들은 <용비어천가>를 전하며 외네.(海東千載應清河 尺鈞開基寶曆多 去歲又回昇極日 邦人傳誦御天歌)”라고 하여 이 지역 사람들에게 <용비어천가>가 전승되고 있음을 말하고 있다.<sup>2)</sup>

1) 李石亨, 『樗軒集』 卷下, 『咸興聞韶樓記』, 『한국문집총간』 9, 424면, 『신증동국여지승람』 권48, 『함흥부』, 『국역 신증동국여지승람』 VI, 149~151면.

이렇듯 함흥이 조선을 세운 기반이라는 점에서 <용비어천가> 전송은 관북 지역 시가 향유의 출발점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가영승평(歌詠昇平)과 위안장사(慰安壯士)의 일환으로 반석평(潘碩枰, ?~1540)이 짓고 이기(李芑, 1476~1552)가 운색했다고 전하는 8장의 <관산별곡(關山別曲)>을 주목할 수 있다. 중종 11년(1516) 무렵에 조정에서 중망이 있는 사람을 선발하여 북변에 파견하였을 때에, 이기가 종성(鍾城)으로, 반석평이 경흥(慶興)에 부임하게 되었다. 이 무렵 반석평이 짓고 이기가 운색한 것이 <관산별곡> 8장인데, 경기체가로 추정할 수도 있는 작품이다. 작품의 실체는 현재 확인되지 않지만, 이른바 치세지음(治世之音)으로, 날마다 빈교(賓校)와 요좌(僚佐)와 즐기면서 노래로 부르면서 되돌아보게 한 것이다. 군자가 들으면 사효(思孝)에 감격하는 마음이 절로 일어나고, 소인이 듣게 되면 강토를 지키고자 하는 마음이 조금도 쇠퇴할 틈이 없을 것이라 하였다.<sup>3)</sup>

또한 <함산십곡(咸山十曲)>은 한준겸(韓浚謙, 1557~1627)이 조선의 왕업이 조흥(肇興)한 함산에서 음설(淫媒)의 말을 없애고 십곡을 지어 노

2) 蔡濟恭(1720~1799), <雙城館 敬次從祖父希菴先生板上韻>(『樊巖先生集』卷之八)의 함련, “斗極尙傳飛電夢 教坊皆誦御天歌”, 洪良浩(1724~1802)의 朔方風謠, <鐵嶺高>(『耳溪集』권5)에서도, “街童盡唱龍飛歌 武士皆騎白鼻毫” 등의 기록을 확인할 수 있다.

3) 林亨秀, 『書關山別曲後』, 『錦湖遺稿』 『한국문집총간』 32.

이 기록의 끝에 闕逢涪灘이라는 年紀가 있어 본문의 내용과 견줄 때 중종 19년(1524)의 甲申으로 추정할 수 있으나, 임형수(1514~1547)의 생애를 살펴보면 11세 때가 되어 실제 임형수의 글인지 의문이 생긴다. 그리하여 이 기록의 <관산별곡>을 <관서별곡>이라 보는 경우도 있으며, 한편 이수광의 『지봉유설』 「문장부」에 白光弘의 <關西別曲>과 별도로 <관산별곡>을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독립된 작품으로 인정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임형수가 중종 34년(1539) 회령부 판관으로 부임하여 「오산가(鰲山歌)」, 「유칠보산기(遊七寶山記)」 등을 남기고 있는 점을 보면 「書關山別曲後」의 年紀도 이 무렵으로 보아야 하지 않을까 한다.

래 부르게 한 것인데, <육룡>, <본궁>, <격구장>, <덕산동>, <문화당>, <무양정>, <구천각>, <낙민루>, <백화원>, <만세교>의 순으로 각 4장씩으로 구성하였다. 아울러 조익(趙翼, 1579~1655)<sup>4)</sup>이 「함산십곡발」을 지어 그 성격을 밝히고 있고, 한헌교(韓憲教)가 엮은 『속수함산지통기(續修咸山志通紀)』의 「민속가요(民俗歌謠)」<sup>5)</sup>에도 수록되어 있다.

## 2) 무변 풍류의 양상과 기녀들의 역할

무인의 호기는 조선의 건국과정과 육진을 개척하고 사군을 설치하는 등 영토를 확장하는 과정에서 매우 강조된 덕목이었다. 그리고 이러한 덕목은 무인이 가져야하는 기본적인 자세로 인식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관북 지역이 북변(北邊)에 해당하여 기녀들과의 풍류나 수작도 필연적으로 수반되곤 하였다. 여기에서 한 발 더 나아가게 되면 무인들의 정치적 야망과도 이어지는 것이어서 또 다른 변수로 작용하기도 하였다.

김종서(金宗瑞, 1390~1453)의 <호기가>와 같은 것이 우선 들 수 있는 사례이다.

삭풍은 나모긋티 불고 명월은 눈속에 촌디  
만리변성에 일장검 잡고 서서  
긴포람 큰 혼소리에 거칠 거시 업세라  
『청구영언(진본)』013

4) 조익도 <咸興曲 5수>(『浦渚集』 권1)를 남겼다.

5) 『속수함산지통기(續修咸山志通紀)』의 「민속가요(民俗歌謠)」에 수록된, <甘靈頌>(卞季良), <長坪歌>(李長坤), <梨亭歌>(都慎修), <秋夜辭>(朴靖), <送別歌>(朱格), <田園樂>(朱汝井), <感君恩>(李東彦), <咸山十曲>(韓浚謙, 趙翼 跋), <咸山謠>(李東郁), <咸關歌>(鄭澐), <雲洞歌>, <水東亭歌> 등을 통해 함흥 지역의 시가 향유를 점검할 수 있다.

남이(南怡, 1441~1468)의 “장검을 싸혀들고~”와 같은 작품도 같은 계열에 해당하는 것이다.

그런데 김종서나 남이의 경우는 장수로서 전체를 통솔하는 입장에 있다고 할 수 있어서 당당하게 호기를 펴는 일이 명분에도 타당한 일이지만 실제 무변의 일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사정이 다를 수도 있다.

16세기 초반 문신<sup>6)</sup>이 북관에 파견되어 기녀들과 시가를 향유한 사정은, 홍문관 수찬에서 회령부의 판관으로 부임한 임형수가 명천현감, 경성교수 회령부사 등과 함께 칠보산을 유람한 뒤에 「유칠보산기(遊七寶山記)」(『금호유고』)에 기록한 내용에서 그 일단을 짐작할 수 있다.

노래하는 기생이 곡을 안배하고 피리 부는 사람이 노래에 기대니, 울리는 소리가 바위골짜기를 뚫고 위로는 높은 하늘을 두드리니, 날개가 돌아 봉래산을 오르는 것처럼 상쾌하고, 왕자교에게 읊을 하며 서로 노니는 것 같았다. … 눈을 깔고 술자리를 마련하고, 바람을 맞으며 노래를 읊조리는데, 마침내 <하산가(下山歌)> 3절을 지어 하고소(下姑蘇)에게 부르게 하여 산령을 즐겁게 하고 술을 들어 권하다가 서로 잔뜩 취하여 돌아왔다.<sup>7)</sup>

유람에 나선 몇몇 관리 이외에도 가기(歌妓)와 적자(笛者)가 동행하고 있고, 내려오는 길에 <하산가(下山歌)><sup>8)</sup> 3절을 지어서 기생으로 추정되

6) 許瀟(1563~1640)의 <三月三日永興府使會…仍留宴數日…>(『수색집』 권2)에서 “一帶紅粉新粧明 新羅聖代處容舞”이라고 하여 <처용무>가, 趙緯韓(1567~1649)의 <重九日兵使…設宴>(『현곡집』 권5)에서 “分行樂府歌聲振 列帶紅粧舞袖長”이라고 하여 ‘樂府’가 언급된 것을 보면 府使나 兵使가 주관하는 잔치마당에서 기녀가 동반된 가운데 연행되는 레퍼토리에 대한 관심이 환기된다.

7) 遊七寶山記, 『한국문집총간』 032, 238~241면.

歌妓按曲。笛者倚歌。響徹巖谷。上夏雲霄。爽然如羽化而登蓬萊。揖王喬而與之遊也。…藉雪開酌。臨風詠歌。遂製下山歌三闕。令下姑蘇歌之。以娛山靈。舉酒而侑之。相與盡醉而還

는 하고소에게 부르게 하였다는 점에서 풍류 현장의 성격과 구성원들의 면면을 확인할 수 있다.

다음으로 17세기 초반 일당백(一當百)<sup>9)</sup>의 무사로 뽑혀 회령(會寧)에 간 울산 출신의 박계숙(朴繼叔, 1569~1646)의 『부북일기(赴北日記)』와 신출신(新出身)으로 경성(鏡城)에 가게 된 그의 아들 박취문(朴就文, 1618~?)의 『부방일기(赴防日記)』를 통해서 무변 풍류의 일단을 살필 수 있다.

박계숙의 경우 울산을 출발하여 9인이 육로를 통하여 한양에 들러 열흘 정도의 일정으로 임무를 부여받고 민정랑(閔正郎), 한판서(韓判書), 김판서(金判書) 등을 만난 뒤에 부임지로 출발한 것으로 되어 있다.

우선 임지로 부임하는 과정에 읍은 2수의 시조에서는 무부의 기개가 돋보인다.

行路難 行路難 바라보니 7이업다  
二千里 거의 오니 쏘압피 千里나미  
忠心已許國 하니 먼줄물나 가노라<sup>10)</sup>

關山風雪裡에 가시는 벗님내야  
어디를 가노라 匹馬를 비야는다  
塞外에 아득흔 胡塵을 다쁘로려 가노라<sup>11)</sup>

8) <下山歌>는 후대에 김창흡이 <下山>(『三淵集拾遺』卷之十)에서 “東臺下馬悵踟躕 花鳥春山憶錦湖 後至寧無歌一闕 夏雲聲了下姑蘇 \*錦湖作下山曲 使妓下姑蘇歌之”라고 하여 호응하였다.

9) 『선조실록』 권187, 38년(1605, 을사), 5월 26일(기해), 『선조실록』 권188, 38년(1605, 을사), 6월 25일(무진).

10) 『부북일기』1605년 11월 24일, 이수봉, 『구운몽후와 부북일기』(경인문화사, 1994), 270면.



앞의 것은 철령(鐵嶺)을 넘으면서 감회를 읊은 것이고, 아래의 것은 덕원(德源)을 지나 문천(文川)에서 묵으면서 읊은 것이다. 앞의 것은 이항복(李恒福, 1556~1618)이 광해군 10년(1618) 북청으로 유배가면서 “철령 노픈 봉에~”라고 읊은 것이나, 신교(申澆, 1641~1703)가 <북정음><sup>12)</sup>에서 “철령 노픈 재를~” 등으로 읊은 것과 견주어 살필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화자의 태도는 “먼 줄 몰나 가노라”, “다 브로려 가노라”에 드러난 것처럼 일당백의 무사의 기개가 배어 있다.

이와 함께 아들 박취문(朴就文, 1618~?)이 북청 경계의 문고개(門古介)를 넘어 수중대(水重臺)에 들어서 회포를 노래한 데서도 스스로 고급 호걸이라고 자부하고 있어서, 무인의 기상을 읽을 수 있다.

못노라 水重臺야 너나건지 몇千年고  
 古今豪傑이 몇몇치 지나더니  
 이후의 못느니 잇거든 날 왔더라 닐러라<sup>13)</sup>

한편 쇄마(刷馬)가 미치지 않아 경성(鏡城)에서 머물면서 금가(琴歌)에 능한 금춘(今春; 字 月娥)이라는 기생과 수작한 시조는 무변과 기녀의 수작<sup>14)</sup>이라는 현장성을 드러내면서 시가 창작과 향유에서 무변의 역

11) 『부북일기』 1605년 11월 27일, 이수봉, 『구운몽후와 부북일기』(경인문화사, 1994), 269면.

12) 이수봉, 백석정 신교의 가사와 시조, 『어문학논총: 맥남김일근박사화갑기념』(1985).

13) 『부방일기』 1645년 2월 1일, 이수봉, 『구운몽후와 부북일기』(경인문화사, 1994), 212~211면.

14) 이와 비슷한 상황에서 불려진 것으로 성종 때에 永興의 명기인 笑春風이 읊었다고 하는 작품이 『해동가요』 등에 전해지고 차천로(1556~1615)의 『五山說林草藁』에 자세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할을 새삼 주목할 수 있는 대목이다.

비록 丈夫乙지라도 肝腸鐵石이라  
堂前紅粉를 古戒를 사맛더니  
治城의 皓齒丹脣을 묻니즐가 訶노라(박)

唐虞도 친히본듯 漢唐宋도 지내신듯  
通古今 達事理 明哲人을 어디두고  
東西도 未分흔 征夫를 거러므습 訶리(월)

나도 이러訶나 洛陽城東 胡蝶이로라  
枉風의 지불려 여긔저긔 든니더니  
塞外에 名花一枝에 안자보라 訶노라(박)

兒女戲中辭를 大丈夫 信聽마오  
文武一體를 나도 잠깐 아노이다  
訶물며 趙趙武夫를 아니겘고 엇지리(월)<sup>15)</sup>

이와 함께 우리가 『부북일기』에서 관심을 두고자 하는 부분은, 선조 39년(1606) 2월 20일에 구인후(具仁厚, 1578~1658)<sup>16)</sup>와 정충신(鄭忠信, 1576~1636)<sup>17)</sup> 등이 그곳을 다녀간 사실을 기록한 점이다. 이들은 특수

15) 『부북일기』 1605년 12월 27일, 이수봉, 『구운몽후와 부북일기』(경인문화사, 1994), 261면.

16) 구인후는 무신으로 김장생의 문인, 선조 36(1603) 무과 급제, 선전관, 고원군수, 갑산부사 등을 역임하고 인조반정의 모의에 참여하여 뒷날 정사공신 2등이 되었고, 정묘호란 때에 임금을 모시는 주사대장(舟師大將), 뒤에 전라병사, 포도대장, 어영대장, 병조판서, 훈련대장 등을 거쳐 우의정, 좌의정에 올랐다. 『해동가요』에 “어전에 실언하고 특명으로 너치시니~”로 시작되는 시조가 실려 있다.

임무를 띠고 접경 지역을 다니던 중이었던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들이 뒷날 무반으로서 높은 벼슬을 역임했을 뿐만 아니라 정충신의 경우는 “공산이 적막흔디~”의 작가로 소개되어 있고, 이 작품이 여러 가집의 첫머리에 우주 초중대엽(羽調初中大葉)으로 배치되어 있다는 점에서 무반의 시조 향유에 어떠한 역할을 했을 것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여기에서 또 하나 거론할 수 있는 것은 무이보(撫夷堡) 만호 이지만(李枝萬)이 짓고 읊은 <팔지가(八池歌)>라는 작품이다.

팔지는 무이보에 있는 못으로, 오색의 연꽃이 그 속에 있고 읍지에는 용산주가 있다고 하였는데, 김창흡(金昌翕, 1653~1722)이 숙종 42년(1716) 2월 북관으로 가면서 기록한 「북관일기」의 윤삼월 5일의 기록에, 무이보 만호인 이지만이 스스로 <팔지가(八池歌)>를 지어서 높은 소리로 낭랑하게 노래 불렀다고 하였다.<sup>18)</sup> 이것은 만호로서 그 지역의 명물을 노래함으로써 자긍심을 드러낸 것이라는 점에서 주목해야 할 부분이다.

그리고 『고금가곡(古今歌曲)』을 엮었다고 하는 송계연월옹(松桂煙月翁)이 가집의 말미에 ‘자작’이라고 수록한 작품 중에서 몇 수가 북변의 무반 체험을 형상화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북변삼괘>, <서새삼괘> 등에서 자신의 행적을 암시하고 있어서 더욱 관심의 대상이다.

17) 정충신은 무신으로 미천한 집안에서 태어났으며, 절도영에 속한 정병(正兵), 부에 속한 지인(知印;通引)을 겸하였다. 임진왜란 때 권윤의 휘하에서 종군하고, 이항복에게 史書를 배워서 무과에 급제하였고, 광해군 3년(1621) 안주목사를 하고, 이괄의 난을 물리쳤으며, 뒷날 포도대장, 경상도병마절도사 등을 지냈으며, 이항복의 유배생활의 기록인 『北遷日錄』을 남겼다. 정충신의 연보(『晚雲集』부록 권2)에는 1606년의 기록이 빠져 있다. 그리고 여러 가집에 “공산이 적막흔디~” 등의 시조가 그의 작품으로 수록되어 있는데, 珍靑 392에 무씨명으로 수록되었던 것이 후대의 다른 가집에 첫머리를 차지하고 있는 경우도 있어서 그 사정이 궁금해진다.

18) 김창흡, 「북관일기」, 『삼연집습유』 권28, 『충간』 167, 그런데 김창흡의 시로 <八池歌>가 두 편 실려 있어서 이와 관련을 검증할 필요가 있다.

마천령 올라안자 동해를 구버보니  
 뜰 밧긔 구름이오 구름 밧긔 하늘이라  
 아마도 평생장관은 이거신가 흐노라  
 『고금가곡』 296

3) <철령가(鐵嶺歌)>의 파급과 또 다른 내면

앞에서 무변 풍류에서 잠깐 살폈지만 강원도 회양과 함경도 안변의 경계에 있는 철령을 넘어 힘지로 부임하는 무인들에게 그 고개는 북변으로 들어가는 길목이라는 점에서 감회가 남달랐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런데 문신으로 지낸 이항복(李恒福, 1556~1618)은 광해군 10년(1618) 북청으로 유배가면서 자신의 느껴온 마음을 다음과 같이 읊었다.

철령 노픈 봉에 쉬어넘는 저 구름아  
 고신원루를 비사마 띄여다가  
 님계신 구중심처에 뿌려본들 엇드리  
 『청구영언(진본)』103

이 노래는 <철령가> 또는 <숙운가(宿雲歌)> 등으로 불리면서 충성스런 신하의 변함없는 마음을 읊은 것이라고 큰 반향을 일으키고 여러 사람이 한역하기도 하였다. 그런데 앞에서 살핀 무인들의 작품과 견주면 같은 철령을 넘으면서도 마음의 방향이 구중심처를 향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그리고 후대의 수용은 한 개인의 내면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정치적 국면과 연결시켜 이해하려는 시각이 강하게 투영되기도 하였다.

이정구(李廷龜, 1564~1635)는 「답백사(答白沙)」(『月沙先生集』 卷之三十五)에서 어떤 사람이 가곡(歌曲)을 전해 주었는데, “대궐을 그리워

하며 돌아갈 것을 생각하고, 뜻이 온화하며 괴로워하는 말이 쓸쓸하다.(思歸戀闕 情意藹然 苦語淒然)<sup>19)</sup>라고 평을 내리고 있으며, 송국택(宋國澤, 1597~1659)은 <철령고(鐵嶺高)>(『四友堂先生集』卷之一)라는 시의 주에서 이 노래를 한역하여 소개했다.<sup>20)</sup>

그리고 남구만(南九萬, 1629~1711)은 함주와 흥원 사이에 있는 함관령(咸關嶺)을 넘으면서 북쪽 사람들이 이항복의 노래를 전승하고 있는 것을 듣고 그 노래의 절실함에 눈물을 흘렸다고 하고, “咸關嶺高復高 夜宿曉去寒雲飛 孤臣冤淚欲附汝 願帶爲雨長安歸 長安宮闕九重裏 儻向君前一霏霏”<sup>21)</sup>와 같이 한역하였다.<sup>22)</sup>

그런데 송시열(宋時烈, 1607~1689)의 「서백사철령가후(書白沙鐵嶺歌後)」(『宋子大全』卷一百四十八)가 <철령가>의 후대 평가를 대변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여기에는 인조반정으로 정권을 잡은 쪽의 사람들의 태도도 반영되어 있는 것이다.<sup>23)</sup>

19) 『月沙先生集』卷之三十五, 書牘, 上, 『한국문집총간』 070, 94면.

20) 『四友堂先生集』卷之一, 『한국문집총간 속』 027, 267면

\*彌雲李相公謫北青時。登鐵嶺作歌曰。鐵嶺高處宿雲飛。飛飛何處歸。願帶孤臣數行淚作雨。去向終南白岳間。淚灑瓊樓玉欄干

21) 南九萬, 「白沙獻議手草跋」, 『藥泉集』第二十七, 『한국문집총간』 132, 452면.

22) <鐵嶺歌> 한역은 인용한 사람 이외에도 李基休, 李福休, 成海應, 徐有英, 元世洵 등으로 이어져서 그 진폭이 만만하지 않다. 김문기·김명순 편저, 『시조·가사 한역 가전서』 1(태학사, 2009), 315~318면 참조.

23) 宋時烈, 書白沙鐵嶺歌後, 『宋子大全』卷一百四十八, 『한국문집총간』 113, 180면 참조.

鐵嶺高處宿雲飛。飛飛何處歸。願帶孤臣數行淚。作雨去向終南白嶽間。沾灑瓊樓玉欄干。\*右翻鐵嶺歌。效水調頭詞體。右白沙李文忠公北遷時鐵嶺歌也。公雖在流離困厄之際。而愛君不忘之誠。自然形於吟詠之間者如此。彼不得於君而便有怨怒憤激之意者。果何心哉。廢朝遊宴後庭。聞一宮人唱此。問知爲公作。愀然不樂。因泣下而罷酒。其聲詩之感人也如是夫。然終不能如宋帝感水調詞而東坡得蒙量移。卒使公歿於窮荒。此其所以存亡之異途也。記昔天啓

## 4) 관북의 여정 소개와 그 반향

관북 지역의 풍물과 여정에 대한 관심은 다양하게 나타났는데, 관북의 여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한시를 통해 형상화하였다. 그 중에 가사를 통해 드러낸 것으로 조우인(曹友仁, 1561~1625)이 광해군 8년(1616) 경성판관(鏡境判官)으로 부임하여 지은 <출새곡(出塞曲)>을 들 수 있다. 조우인은 정철의 <관동별곡>에 견주어서 속편인 <속관동곡>을 짓고, 백광홍의 <관서별곡>에 견준 <출관사>를 짓기도 했는데, 조탁(曹倬, 1552~1621)의 권유에 의해 <출새곡>을 지었다고 하였다. 「제출새곡후(題出塞曲後)」이다.

병진년 가을에 외람되어 경성판관의 명을 받고, 길을 떠나면서 사제로 치재 형을 뵈었다. 공이 술을 따라 전별하면서 말하기를, '백광홍의 노랫말이 관서에서 울리고, 정철의 노랫말은 관동에 퍼졌는데, 북로에 이르러서는 대개 들리는 것이 없다. 고금에 문인과 재자로 삭방에 오고가는 사람이 어찌 한둘을 헤아린다고 해도 오히려 그러함이 어찌 되겠는가? 이것이 풍류 마당의 한 가지 부족한 일이 아니라? 그대가 나를 위해 지극한 뜻으로 생각을 엮어서 장가 한 편을 지어 와서 늙은 형의 고적한 회포를 위로하면 좋겠네.' 내가 이에 그렇게 하겠다고 하고, 길을 떠나 달포가 지나 비로소 경성에 닿았다. 경성은 서울과 떨어져서 거의 이천리가 되며, 길은 고개 냇을 넘어야 하고, 땅은 육진에 막혀 있다. 기후와 경치가 끊겨서 서남과 서로 가지런하지 않으며, 옥저 이북은 물과 바다 한 길은 험함과 위태로움이 심하다. 길을 따라 물색이 마음과 눈을 즐겁게 하는 것이 거의 없거나 조금 있을 뿐이다.

---

辛酉間。廢朝亦惡群小輩誣罔。教曰。悌男之爲若德久矣。今之議者。每以悌男爲言。語不新奇。聽亦疲勞。此言沍可休矣。然則廢朝非不知群小之奸兇矣。知群小之奸兇。則知公之忠賢也。尤益明矣。而威福旣已下移。只屯膏泣血而竟至於不長。可勝歎哉。千載之下。聞此歌而淚不下者。眞所謂無人心者也。崇禎紀元之年月日。恩津宋時烈謹跋

그러므로 귀와 눈이 미치는 것을 주워서 장가 한 편을 만들어서 <출새곡>이라 이름하였다. 노래는 대개 백십여 언이고, 말의 뜻은 슬프고 한탄스러워, 절로 텅 비어서 할 수 없는 것과 같다. 대개 끊어진 변새에 몸을 던지면, 사람의 마음이 반드시 다다르게 되는 것이다. 안타까운 것은 경성이 곧 북쪽 오랑캐의 군막이라, 비록 기악이 있으나 늘 무변들과 섞여 있어서 늘 이악(俚樂)을 찾아서 모두 음란하고 외설스러운 말이고, 고아한 노래를 부르며 투호놀이를 하는 고사는 대개 빠진 것 같다. 비록 이 노랫말을 관현에 올리 고자 하나 쓸 데가 없지 않으랴? 그러므로 노래가 이루어지자 문득 상자 중에 갈무리하고 뒷날 돌아가면 다만 스스로 펼쳐 보면서 그윽하고 근심스러운 것을 펴면 좋을 것이다.<sup>24)</sup>

<출새곡>의 여정은 인정전 → 흥인문 → 녹양 → 회양 → 칠령 → 안변 → 용흥강 → 정평부 → 만세교 → 낙민루 → 함관령 → 홍원 → 대문령 → 청해진 → 거산역 → 시중대 → (단천) → 사지현 → 마운령 → 마곡역 → 마천령 → 목낭성 → 원수대 → 경성으로 되어 있으며, 인용한 글에서 밝히고 있듯이 북변의 군막에서 무변들과 기녀들이 어울리는 음란하고 외설스러운 것과는 변별된다고 하고, 점잖고 문약한 무장의 몫으로

24) 曹友仁, 「題出塞曲後」, 『頤齋集』, 卷之二 雜著, 『한국문집총간 속』 012, 303면.  
丙辰秋。叨承鏡城之命。臨行拜耻齋兄於私第。公乃酌之酒而與之餞曰。白詞則鳴於關西。鄭詞則播於關東。而至於北路。則槩無聞焉。古今文人才子之往來朔方者。豈可以一二數而猶然者。茲非風流場之一欠事歟。子其爲我極意構思。製爲一長歌而來。以慰老兄孤寂之懷可也。余迺唯唯。行行過月餘日。始達于鏡。鏡之距京都。幾二千餘里。路踰四嶺。地窮六鎮。風氣景象。絕不與西南相侔。而沃沮以北。則濱海一路。崎嶇險澁甚矣。沿途物色之可以娛心目者。絕無而僅有。故掇拾耳目之所及者。而製爲長歌一篇。名之曰出塞曲。歌凡百十餘言。而詞意悲涼悽惋。似若有以自曠而不能者。蓋以投身絕塞。在人情所必至也。所恨鏡乃北戎幕也。雖有妓樂。而常與鷗弁混處。故尋常俚樂。盡是桑間淫褻之詞。而雅歌投壺故事。則蓋闕如也。雖欲被此詞於管絃。無所用諸。故詞成。輒藏之篋笥中。他日歸來。祇自展觀。以暢幽悃之爲好也。

남기겠다고 한 것이다. 결국 관현에 올리지 못할 것이라 하여 실제 그 지역 사람들과 함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기회는 봉쇄한 셈이다. 모처럼 관북지역의 풍물과 승경을 읊으면서 해당 지역 사람들과 즐거움을 함께 하지 못하고 서울을 비롯한 다른 지역 사람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거나 북변을 여행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와유(臥遊)의 위안을 삼으려 했다는 점에서 일정한 한계를 지닌 것이라 할 수 있다.

##### 5) 현장의 삶과 관심의 추이

함경도의 관곡(寬谷)에서 지낸 김기홍(金起泓, 1635~1701)의 <채미가>와 <농부사><sup>25)</sup>는 민정중, 이단하, 남구만 등과 교유하기도 한 북관의 인물이라는 점에서 관심을 끌 수 있다. 내용에 있어서는 전원생활의 소박한 즐거움을 노래한 것이라 문학적으로 높은 평가를 내리기 어렵다. <관곡팔경가>라는 전원의 생활을 읊은 시조도 남기고 있다.

한석지(韓錫地, 1709~?)의 <길몽가>와 같은 작품은 영조 35년(179)경에 꿈속에서 중국의 역대인물을 만난 다음 맹자에게 가르침을 받았다는 내용을 정리한 몽유가사이다.

강응환이 고령진 첩사로 백성들을 잘 보살폈다고 백성들이 지은 <선정가>는 관리에 대한 백성들의 입장을 읽을 수 있다.

이와 전주면 <갑민가><sup>26)</sup>와 같은 작품은 군사도망을 감행해야만 하는 갑민의 사정을 푼진하게 형상화하고 있어서, 외부인의 시각에서 관찰한 것과는 다른 현지인의 생생한 삶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군사도망을 하는 인물을 향하여,

25) 임영정, 관곡선생문집과 언문가사·시조, 『도서관』 제29권 제3호(국립중앙도서관, 1974).

26) 이상보, 『한국고전시가연구·속』(태학사, 1984).



차라리 네 사던 곳에	아모케나 뿌리 박여
칠팔월에 채삼하고	구시월에 돈피 잡아
공채신역 깊은 후에	그 나머지 두었다가
함흥북청 흥원장사	돌아들어 잠매할 제
후가 받고 팔아내어	살기 좋은 너른 곳에
가사전토 고쳐 사고	가장집물 장만하여
부모처자 보전하고	새 즐거움을 누리려문

라고 말을 건네지만, 갑민은 자신의 사정을 세세하게 설명하면서 떠나야만 하는 상황을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있다. 조상은 전가사변으로 옮겨와서, 죄수·별감 등을 지냈으나 원수의 모함으로 군사강정(軍士降定)되어 일가가 충군(充軍)의 지경이 되었다는 것이다.

약간 농사 전폐하고	채삼하려 입산하여
허항령 보태산을	돌고 돌아 찾아보니
인삼 싹은 전혀 업고	오가 잎이 날 속인다
하릴없이 공반하여	팔구월 고추바람
안고 돌아 입산하여	돈피산행 하려 하고
백두산 등에 지고	분계강하 내려 가서
싸리 꺾어 누대 치고	이깔나무 우등 농고 <sup>27)</sup>

돈피사냥을 기다렸지만, 입동이 지나 눈이 내리는 바람에 돈피를 구하지 못하고 겨우 목숨만 건져서 집으로 돌아오니 동상에 걸린 발가락이 사라져서, 사십육 량 돈으로 돈피를 대신하고자 했으나 사또가 허락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런데 마침 북청부사(北靑府使)가 여러 신역을 대소 민

27) 이상보, 『18세기 가사전집』(민속원, 1991), 446면.

호에 분징(分徵)한다는 소문을 듣고 북청으로 가겠노라고 한다.

후치령로 빗겨 두고	금창령을 허위 넘어
단천 땅을 바로 지나	성대산을 넘어서면
북청 땅이 귀 아닌가	거처호부 다 떨치고
모든 가속 안보하고	신역 없는 군사 되세 <sup>28)</sup>

그리고 이용식(1854~1943)이 고종 22년(1885) 경에 지은 것으로 추정되는 <동점별곡>과 같은 작품은 구리를 생산하는 광산노동자의 삶을 그리고 있어서 재화를 두고 각축을 벌이고 있는 과정에 노역에 종사하는 주체의 힘겨움을 구체화하고 있고, 나중에는 파산당하여 고향으로 돌아가게 된 참상을 자세하게 서술하고 있다.

수백장 깊은굴에	땅속으로 기여들어
동서사방 두루파니	만여장이 한심하다
산상의 모진이깔	갓초들어 꾸밀적에
곧은동방 내동방의	삼사층을 꾸며내니
구군반수 역사꾼과	매철장수 수운꾼의
지동치듯 무너지니	흔비백산 가련토다 <sup>29)</sup>

##### 5) 유배 체험의 여러 양상들

관북지역으로 유배를 간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유배 체험을 한시, 시조, 가사 등으로 형상화하였다. 그 중에서 윤선도의 <견회요>와 몇 편의 가사에서 유배 체험의 양상을 확인할 수 있다.

28) 위의 책, 448면.

29) 정렬모 편, 『가사선집』(조선문학예술총동맹출판사, 1964), 326면.

윤선도(尹善道, 1587~1671)의 <견회요(遣懷謠)>는 5수로 되었는데 광해군 10년(1618) 함경도 경원으로 유배되어 지내면서 지은 것이다.

내일 망녕된 줄을 내라하야 모를손가  
이먹음 어리기도 님위헌 타시로쇠  
아미 아미리 날리도 님이 헤여 보소서

추성 진호루밭기 우리네는 더시내야  
므슴호리라 주야의 흐르는다  
님향흔 내뜰을조차 그칠 뉘를 모로는다  
고산유고 권6

송주석의 <북관곡(北關曲)>은 송주석(宋疇錫, 1650~1692)이 숙종 1년(1675) 덕원으로 귀양 간 할아버지 송시열(宋時烈, 1607~1689)을 시봉하면서, 다른 정파에 대한 원망과 험난한 여정에서 느끼는 감회를 읊고 있다.

해운 흉소 후에 사설이 횡유하야  
비주 이중설과 국본이 미정상소  
전후에 이름 달나 세철에게 극히 되니  
흥 참고 위험한 말 몸의 썩 니노매라  
.....

<북찬가>는 이광명(李匡明, 1701~1778)이 영조 31년(1755) 갑산으로 유배를 가서 지은 것이다.

삭풍은 들어치고	스산은 육인 골이
희목은 얼음이오	조츄의 눈이오니
빅초가 선넝커든	만곡이 될 세업니
귀보리밥 못 니으며	니밭이야 구경홀가
소치도 주리거니	어육을 심각홀가 <sup>30)</sup>

이광사(李匡師, 1705~1777)의 <무인입춘축성가>는 영조 34년(1758) 함경도 부령으로 유배되어 입춘을 맞아 임금의 성덕을 송축한 것이다.

이기경(李基慶, 1756~1819)의 <심진곡>과 <낭유사>는 경원에서 유배 생활을 하면서 천주교, 도교, 불교 등을 비판하면서 유교가 참된 가르침이라는 것을 강조한 작품이다.

### 3. 관서 지역 시가 향유의 특성

관서(關西)는 마천령 서쪽 지역을 가리키는 말이고, 해서(海西)는 황해도를 달리 이르는 말이다. 이 두 지역을 함께 이룰 때에는 서도(西道), 서로(西路), 서관(西關) 등으로 표현하기도 한다.

#### 1) 백성 교화를 위한 재관인의 노력

16세기 초반 관리의 입장에서 백성들을 교화하는 일이 매우 중요하고 시급한 과제였다고 할 수 있다. 유향소 복립, 소학 실천, 향약 보급 등의 일련의 정책을 실천하는 과정과도 연결되어 있으며 특히 서로(西路)의 백성들을 교화하는 일은 이곳이 사신(使臣)이 드나드는 요로라는 점도

30) 위의 책, 150면.

있고, 향촌 질서를 수립한다는 의도도 포함되어 있다.

김정국(金正國, 1485~1541)이 중종 13년(1518) 황해도 관찰사로 부임하여 이듬해에 「경민편(警民編)」 12조를 마련했는데, “곤궁하고 외로운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고 송사를 듣고 판결을 내리는 데 밝게 하며, 이른 아침부터 늦은 밤까지 백성이 쉽게 좇을 수 있고 쉽게 무릅쓸 수 있는 것을 취하여 12조를 삼은 것이다.”<sup>31)</sup> 또한 「학령(學令)」 24조를 마련하여 배우는 사람을 가르치기도 하였다. 그런데 이 「경민편(警民編)」은 뒷날 언해가 된 데다, 정철(鄭澈)이 강원도관찰사를 하면서 지은 <훈민가(訓民歌)>를 첨부하여 보급하기 시작하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기도 하였다.<sup>32)</sup>

한편 주세붕(周世鵬, 1495~1554)은 명종 3년(1548) 황해도관찰사로 부임하여 이듬해에 <오륜가(五倫歌)>를 지어서 일로(一路)에 베풀었다.<sup>33)</sup> 첫 수를 예시한다.

사람 사람마다 이 말씀 드러스라  
이 말씀 아니면 사람이오 사람 아니  
이 말씀 낫디 말오 비호고야 마로렁이다  
『무릉잡고』

## 2) 관서의 여정 소개와 경승에 대한 관심

<관서별곡>은 백광홍(白光弘, 1522~1556)이 명종 10년(1556)에 평안

31) 김안국 찬, 「墓誌」, 『思齋集』, 최재남, 『사람의 향촌생활과 시가문학』(국학자료원, 1997), 79~84면.

32) 최재남, 「<훈민가> 보급의 경과와 그 의미」, 『고시가연구』 21집(한국고시가문학회, 2008).

33) 주세붕, 『무릉잡고』 부록 권2, 연보, 최재남, 『사람의 향촌생활과 시가문학』(국학자료원, 1997), 216~244면.

도 평사(評事)가 되어 관서 각 고을의 형승을 기록한 가사이다. 벽제 → 임진 → 천수원 → 개경 → 구현[중화] → 생양관 → 감송정[평양] → 연광정 → 부벽루 → 칠성문 → 백상루[안주] → 결승정[영변] → 철옹성[맹산] → 약산동대[영변] → 배고개[정주] → 수향정[갑산] → 비파관[풍산] → 통군정[의주] 등의 여정으로 이루어졌다.

藥山東臺에 술을실고 올라가니  
 眼底雲天이 一壑에 無際로다  
 白頭山 너린물이 香爐峯 감도라  
 千里를 빗기홀너. 臺압프로 지나가니  
 盤回屈曲 ㅎ야 老龍이 꼬리치고  
 海門으로 드난듯 形勝도 ㄱ이엿다  
 風景인달 안니보라  
 綽約仙娥와 嬋妍玉鬢이  
 雲錦端粧 ㅎ고 左右의 버러이셔.  
 거문고, 伽倻鼓, 鳳笙, 龍管을  
 부르거니 니애거니 ㅎ는 양은  
 周穆王瑤臺上의 西王母 만나 白雲曲 부르난 듯<sup>34)</sup>

<관서별곡>의 반향은 작품이 지어지고 그리 멀지 않은 시기에 관서 지역에서 불리어졌던 것으로 확인된다. 최경창(崔慶昌, 1539~1583)의 <기성문백평사별곡(箕城聞白評事別曲)>(『고죽유고』)이 그러한 예이다. 관서의 현장에서 지은 작품이 현장에서 향유되고 있는 측면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

34) 『岐峯集』 卷之四, [關西別曲] 『한국문집총간』 속 003(민족문화추진회, 2005), 264면.

금수산의 안개와 꽃<sup>35)</sup>은 옛날과 같은 빛인데  
 능라도의 싱그러운 풀은 지금까지 봄빛이네.  
 선랑이 떠난 뒤에 소식이 없으니  
 <관서별곡> 한 곡조에 눈물이 두건에 가득하네.  
 錦繡煙花依舊色           綾羅芳草至今春  
 仙郎去後無消息           一曲關西淚滿巾<sup>36)</sup>

조우인(曹友仁, 1561~1625)은 선조 39년(1606) 여름에 용만을 오고가게 되면서 <관서별곡>의 속편인 <속출관사(續出關詞)>를 짓기도 하였다.<sup>37)</sup>

선조 28년(1595) 영위사(迎慰使) 이현(李愰, 1540~1618)이 지은 <백상루별곡>은 평안도 안주의 백상루(百祥樓)의 경승을 전파하고자 지은 것이다.

향산이 마쵸 뵈에 취병을 두릿도다  
 분첩천층이 벽산요를 에워 띄여  
 굽거니 퍼거나 굽거니 뵈거나  
 설험관방은 철옹성이 갓잡도다  
 약산동대에 느즌 구름 채 짓고  
 향노봉 엇게에 즈연이 비겨시니

예시한 작품에서 밑줄 친 부분은 각각 백상루에서 바라보거나 연상한 주변 지역의 경승들이다. 희천의 묘향산, 맹산의 철옹산성, 영변의 약산동

35) 錦繡煙花와 綾羅芳草는 <관서별곡>에 “연광정 도라드러 부벽루에 올라가니 능라도 방초와 금수산 연화는 봄비를 자랑한다”로 되어 있다.

36) 최경창, 『孤竹遺稿』, 『한국문집총간』 50, 11면

37) 조우인, 題出關詞後, 『頤齋集』卷之二, 『한국문집총간』 속 012(민족문화추진회, 2006), 302면.

대, 평안도 영원과 함경도 정평 사이의 향로봉을 아울러 제시하고 있는데, 이는 실제로 <관서별곡>의 여정과도 일정하게 연관되어 있다.

이후연(李厚淵, 1798~?)의 작품으로 추정<sup>38)</sup>되는 <선루별곡>은 관서 팔경의 하나인 성천의 강선루(降仙樓)에 올라 주변의 변화한 물색을 읊은 가사인데, 악사와 기생들이 모인 대풍류의 현장을 자세하게 서술한 대목을 주목할 수 있다.

대풍류 영이 나니 전악이 주관이라  
 사모 관대 악사들이 차례로 드러오네  
 아리따운 기녀들이 누구누구 모였는고  
 …(혜란이, 명심이, 연연이, 앵앵이, 금랑이, 강선이, 벽옥이, 초운이, 향염이, 연염이, 홍도)…  
 풍악근본 우교방에 열두절차 근검하다  
 박패소리 세 번 나니 능과무가 시작일다  
 더지느니 용의 알은 포구락이 절묘하다  
 쌍쌍 열러 아박이요 쟁쟁소리 향발이라  
 화룡고리 북채는 굉장할사 북춤이며  
 주립 패영 호풍신은 험거할손 무동이로다  
 요지 반도 드릴적에 선관 옥녀 어여쁘다  
 각색 형용 오방춤은 처용탈이 기괴하다  
 협수 전립 연풍대는 번개가튼 검무로다  
 성금성금 환춤이요 설렁설렁 사자로다  
 나군 흥안 둘러서서 방포일성 배따라기  
 반입강풍 반입운하니 천상선악 그지업다<sup>39)</sup>

38) 임형택, 『옛노래, 옛사람들의 내면풍경』(소명출판, 2005), 81~82면.

39) 윤곤강, 『근고조선가요찬주』(생활사, 1947), 169~171면.



<기성별곡(箕城別曲)>과 <향산별곡(香山別曲)><sup>40)</sup>은 각각 서경과 묘향산을 읊은 가사<sup>41)</sup>이다. <기성별곡>은 서경의 산천과 역사적 유적을 자세하게 서술하고 있고, <향산별곡>은 묘향산에서 내려오는 중을 끌어들이며 묘향산의 승경과 절집의 묘사, 서산대사와 유정대사의 유물 등으로 관심을 확대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 3) 조천 · 연행의 노정과 풍류의 반향

관서를 달리 이르는 서로(西路)는 조천(朝天)과 연행(燕行)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다. 명나라 사신이 올 것이라는 예상 때문에 일찍부터 비중 있는 관찰사를 파견하여 대비하게 하는 등 여러 방향에서 관심을 기울였던 것이다.

그런 가운데 사신을 위로하기 위한 잔치 마당은 오랜 세월 지속되고 있었다. 조헌(趙憲, 1544~1592)이 선조 7년(1574)에 명나라에 가면서 쓴 조천일기(朝天日記)에서 “더위와 가뭄이 극심한데 노래와 악기가 서로 시끄럽다.(歌管交轟於災旱之極)”<sup>42)</sup>, “내가 앞길에 노래가 악기가 시끄럽고 번거로우며 술이 지루하게 섞인다.(余在前途 厭其歌管轟煩 酒穀支離)”<sup>43)</sup> 등 이라고 불편한 기색을 내비치는 것에 대하여, 감사가 “먼 길을 떠나는 사람에게 위로하여 보내지 않을 수 없습니다.(遠行之人 不可不慰遣也)”<sup>44)</sup>라고 관례적인 일임을 강조하는 데에서 공변된 위안의 자리에 풍류가 펼쳐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0) 정렬모 편, 『가사선집』에는 김현중(金鉉中)이라는 사람이 지었다고 하는 <향산별곡 2>가 실려 있다.

41) 이 두 작품을 묶어서 <관서별곡>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다.

42) 조헌, 조천일기, 『중봉집』 권10, 『한국문집총간』 54, 350면.

43) 조헌, 조천일기, 『중봉집』 권10, 『한국문집총간』 54, 354면.

44) 조헌, 조천일기, 『중봉집』 권10, 『한국문집총간』 54, 350면.

이러한 위안의 풍류는 몇 편의 가사 작품에서도 확인된다. 작자 미상의 <연행별곡>은 숙종 20년(1694)에 지은 것으로 추정되는데, 사행(使行)의 여정을 중심으로 서술하고 있는데, 귀로의 통군정에서 풍류의 현장을 드러내고 있다.

구련성 다시 와서	통군정 바라보니
흥분을 꺾듯 시러	치선을 빗겨 잇고
가국이 티평하니	티평곡을 말닐소나
아회야 잔 꺾듯 부어라	장일취를 흐리라 <sup>45)</sup>

박권(朴權, 1658~1715)의 <서정별곡>도 숙종 20년(1694)에 지은 것인데, 연행의 여정 곳곳에서 풍류의 면면을 암시하고 있다.

황강성 드러가니	빅일이 노파세라
통관이 다정하여	별연을 노피 베퍼
금슬 청준으로	원익을 위로홀시
고누 야심후의	출시곡을 노피 브니
일촌 나온 간장	여기서 다 씻켰다 <sup>46)</sup>

이러한 공변된 잔치를 위하여 각 관아에서는 사전에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1730년에 간행된 『평양속지(平壤續志)』 1의 「교방(教坊)」조에,

營妓 45명, 樂工 9명  
府妓 39명, 樂工 3명

45) 이상보, 『17세기 가사전집』(교학연구소, 1987), 276면.

46) 위의 책, 279면.

滿殿春, 感君恩, 步虛子, 雙花點, 翰林別曲, 西京別曲, 鳳凰吟, 關西別曲等曲 今不傳<sup>47)</sup>

의 기록을 보아도 이들 레퍼토리를 갖추고 사행(使行)을 떠나는 사람들을 위로하는 잔치를 베풀고 있었던 점을 살필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풍류는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잔치마당의 문제에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측면에서 조정에까지 논란이 되고 있었다.

진주사(陳奏使)의 부사로 청나라에 다녀온 박문수(朴文秀, 1691~1756)가 보고한 내용이다.

부사 박문수는 말하기를,

“... 지금 서로(西路)는 하나의 풍류를 즐기는 난장판을 이루어 방어의 도리가 허술하여 믿을 것이 없으니 이것이 진실로 개탄스러운 일입니다.”

하였는데, 임금이 말하기를,

“경은 즐겁게 놀아보지 않았는가?”

하자, 박문수가 말하기를,

“신은 권적(權穢)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감히 그리하지 못하였습니다.”

하니, 임금이 웃으면서 말하기를,

“만리의 사신 행역에 옛 습관을 버리지 않았으니, 진실로 가상하다.<sup>48)</sup>

한편 순조 29년(1829) 3월 사은겸동지정사 홍기섭의 막비(幕裨)로 연경을 다녀온 박사호(朴思浩)가 기록한 「연계기정(燕薊紀程)」에서는, 귀로에 황주(黃州)에서 대악부(大樂府)라는 이름 아래 <사자무>, <학무> 등의 연행과 일명 <배따라기>라고 하는 <선악유기곡(船樂維其曲)><sup>49)</sup>

47) 『平壤續志』 一, 『邑誌』 14, 평안도, ①(아세아문화사, 1986), 360면.

48) 『영조실록』 40권, 11년[1735] 1월 3일, 『국역 영조실록』 13, 202~3면.

의 연원과 그 후대의 수용을 설명한 뒤에, 서흥(瑞興)에서의 풍류와 그곳에서 향유된 레퍼토리를 자세하게 기술하고 있다.

맑음. 검수(劍水) 30리를 가서 점심 먹고, 서흥(瑞興) 40리를 가서 잤다.

서흥 관아의 북쪽에 새로 지은 한 작은 정자가 있다. 여섯 모로 널찍하고 툇 트였는데 달빛을 타서 올라가 거문고와 노래를 들었다. 한 어린 기생이 나이는 겨우 15세인데 <황계사(黃雞詞)>, <백구사(白鷗詞)>, <죽지사(竹枝詞)>, <권주가(勸酒歌)>, <길군악[路軍樂]>, <귀거래사(歸去來辭)>, <양양가(襄陽歌)>, <악양루기(岳陽樓記)>, <적벽부(赤壁賦)>, <관동별곡>, <춘면곡(春眠曲)>, <오동추야가(梧桐秋夜歌)> 등을 부르는데, 처음에는 앵무새가 지저귀는 것 같더니 갑자기 학이 맑은 소리로 우는 듯, 앵두 같은 입술에서 속삭이듯 줄줄 흘러나오니 소녀 중의 박식(博識)이라 하겠다.<sup>50)</sup>

그리고 이보다 후대에 고종 25년(1888)년 11월부터 고종 26년(1889) 6월까지 편자 미상의 『연원일록(燕遠日錄)』에서는,

(권1)

황주--- 녹주, 운향; <강호사>, <보월사>

(권5) 귀로

의주: <관동별곡>(5월 15일), <강호사>, <처사가>, <춘면곡>(16일), <산유화>, <수유강>(17일), <양양가>(18일)

49) 이 곡은 수로로 조천할 때에 나온 것이며, 이운영(李運永)이 <수로조천가>를 짓고 그의 아들 이희현(李羲玄)이 번역하여 기녀들에게 가르쳤다고 하였다.

50) 『심진고』 제1권, 『연행록선집』 IX(민족문화추진회, 1977), 118~120면.

(권6)

순안: <양양가>, <관산용마>, <춘면곡>, <어부사>(24일)

평양: <백구사>, <황계사>, <처사가>, <진국명산>, <추풍감별곡>, 시  
조, 가곡(25일)

봉산: <매화사>, <소춘향가>(27일)

서흥: <약산동대>, <장진주>, <칠월편>, <적벽부>, <추성부>(28일)<sup>51)</sup>

등과 같이 매우 다양한 레퍼토리가 연행되었음을 기록하고 있다.

그리고 유인목(柳寅睦, 1839~1900의 <북행가><sup>52)</sup>는 고종 3년(1866) 책비 주청사 유후조(柳厚祚, 1798~1876)의 조카이면서 자제군관으로 배  
행하면서 지은 것이다. 이 가사는 이 사행의 서장관으로 갔던 홍순학(洪  
淳學, 1842~1892)이 지은 <연행가>와 견줄 수 있는 것이라 더욱 의미가  
있다. 송경에 들어간 뒤에 마련된 위로의 잔치 장면이다.

통인불너 불들니고	좌석의 참예하니
삼현이 버러있고	성황금실 갖초였다
비반도 낭즈홀분	기악을 불작시면
노리조흔 송옥이논	빅옥을 씨쳐잇고
춤잘추는 옥논이논	화간빅접 그안이야
권쥬가 슈삼잔의	일빅일빅 진취로다 <sup>53)</sup>

이러한 위로의 잔치는 평양에서도 펼쳐지는데, 공변된 처지보다는 사  
사로운 입장에 있어서 그런지, 기녀와의 수작이라든가 행동에 큰 제약을

51) 김남기, 『연원일록』에 나타난 가무악과 연희의 연행 양상, 『국문학연구』 7호(국문  
학회, 2002), 199~235면.

52) 홍재휴, 『북행가연구』(호성여자대학교출판부, 1991).

53) 위의 책, 74면.

받지 않는 것으로 기술하고 있다.

#### 4) 역사적 사건에 대한 반응

순조 11년(1811) 12월부터 5개월에 걸쳐 홍경래(洪景來, 1771~1812)·우군칙(禹君則) 등이 주도한 농민반란은 반봉건의 성격을 띤 것인데, 실제 시가에서의 반응은 제한적이다. 이들 반란 주도세력이 구호로 불렀을 노래도 상정할 수 있으나, 반란이 실패로 돌아가자 전승되는 경우를 찾을 수 없게 되었다.

앞에서 살핀 유인목의 <북행가>에서 늙은 기생의 입을 빌어 그 당시의 사정을 상세하게 듣고, 순사한 정시(鄭蓍)를 칭송하고 항복한 김익순(金益淳)을 비난하는 대목을 확인할 수 있다.

이쌍이 가산이라	임신연일 창연하다
듯기논 흐여스나	보기논 뉘이서리
본읍노기 송월이가	굿터사적 보왓기로
니블러 말무르니	역역히 흐는마리
정공의 당당충절	천고열스 그아인가
...(중략)...	
곽산읍 중화하고	서천읍 다다르니
하쳐를 복죽시면	
괴걸흔 의금정의	의례등디 흐여고야
이러흔 관방중의	만고소인 김익순이
춤아엇지 무릅쭈러	거성항복 흐단말가 <sup>54)</sup>

작자 미상의 <정주가>나 이희현(李羲玄, 1765~1828)의 <정주승전

54) 홍재휴, 『북행가연구』, 100~102면.

곡> 등에서 민심을 수습하는 내용을 볼 수 있다. 이희현의 <정주승전곡>은 순조 23년(1823) 황주목사로 부임하여 여러 자료를 바탕으로 지은 것이다.<sup>55)</sup>

### 5) 서도잡가의 전승 양상과 그 변이

연행의 과정에서 19세기에 연행되는 작품 중에 잡가에 해당하는 것이 여러 편이 있다. 이런 자료들을 바탕으로 서도잡가의 전승 양상을 검토하고 논의할 수 있는 실마리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추풍감별곡>은 평양 기생 연연홍(妍妍紅)이 지은 것이라고 소개되었는데, 평양의 명승지를 두루 다루고 있다.

능라도 쇠한버들	성긴가지 소슬하고
금수봉 꽃진남에	상엽이 표불하다
인간이 변화함을	측량하야 이를것가
애연히 눈을들어	원근을 살펴보니
룡산에 늦은경은	창울함이 심사같고
마탄에 이는물결	당양함이 회포같다
보통문 송객정에	리별아껴 설어말아
초패왕의 장한뜻도	죽기로 이별설어 <sup>56)</sup>

한편 <매화사>는 작자 문제와 구성 문제 등 여러 측면에서 검토해야 할 내용이 많은 작품이다. 그 중에서 다음 대목은 실제 연행 현장의 상황과 관련될 수 있는 부분이라 더욱 주목해야 할 부분이다.

55) 소재영, 「정주가 논고」, 『국문학논고』(송실대출판부, 1989).

56) 정렬모 편, 『가사선집』(조선문학예술총동맹출판사, 1964), 334면.

북경스신 역관들아 오식당스를 부침을 흐세  
 미세미세 그물을 미세 오식당스로 그물을 미세  
 치세치세 그물을 치세 부벽루하에 그물을 치세  
 걸니쇼서 걸니쇼서 정든스랑만 걸니쇼서

성천이라 통의류를 이리로 접땀 더리로 접침 기여눅코  
 혼손에는 박달방추 또 혼손에 물박들고  
 흘으는 청수 드립더 덩석 써서  
 이리로 쌀쌀 저리로 쌀쌀 출녕축쳐<sup>57)</sup>

5단으로 나는 중에서 2단과 4단을 보인 것인데, 『청구영언』(학예사, 1939)에는 3단이 빠져 있다. 일찍이 이 작품을 대상으로 이희승 선생이 매화(梅花)라는 기생을 작가로 추정하고 노래의 배경을 평양으로 본 바가 있다.<sup>58)</sup>

그리고 <춘면곡><sup>59)</sup>은 남도에서 발생하여 서도에서도 크게 유행하였고 다시 서울의 유흥 공간으로 편입된 것으로 설명하기도 한다.

한편 평양의 광문책사(光文冊肆)에서 간행된 『정정증보 신구잡가』<sup>60)</sup>에는 54회에 걸쳐 작품이 수록되어 있는데, <추풍감별곡>, <자운가>, <춘면곡>, <진정부>, <청루원별곡>, <규수상사곡>, <상사회답가>, <상사별곡>, <단장사>, <상사진정몽가>, <석춘사>, <화류사>, <봉황

57) 현공림, 『신찬 고금잡가 부가사』(1916), 『한국잡가전집』 2, 273~274면.  
 58) 이희승, 『조선문학연구초』(을유문화사, 1946), 최재남, 일석 이희승 선생의 고전시가 연구, 『애산학보』 37집(애산학회, 2011), 258~259면 참조.  
 59) 박애경, <춘면곡>을 통해 본 19세기 시정문화와 그 주변, 『한국시가연구』 28집(한국시가학회, 2010), 297~325면.  
 60) 韓仁錫, 『정정증보 신구잡가』(평양, 광문책사, 1915)는 1914년에 초판이, 이듬해에 정정증보판이 발행되었다. 『한국잡가전집』 1(계명문화사, 1984), 1~175면.



곡>, <과부가>, <향산록>, <노처녀가>, <단가>, <초한가>, <진정편>, <탄금가>, <농부가>, <거사가>, <소군탄>, <회심곡>, <시조>, <사설시조>, <지름시조>, <수심가>, <수심가역금>, <놀랑>, <사거리>, <중거리>, <경발림>, <육자백이>, <방에타령>, <양산도>, <홍타령>, <경북궁타령>, <날개타령>, <단가>, <제전>, <영변가>, <배따라기>, <육자동고리>, <성주풀이>, <자즌방아타령>, <긴방아타령>, <자즌난봉가>, <신난봉가>, <사설난봉가>, <토끼화상>, <회심곡관악산조>, <새타령>, <적벽가> 등이다.

그리고 평양의 기성권번(箕城券番)에서 간행된 『가곡보감』<sup>61)</sup>의 「잡가편」에 따르면 서도잡가에 해당하는 것은 <산천초목>, <사거리>, <중거리>, <경사거리>, <긴방에타령>, <자진방아타령>, <양산도>, <긴난봉가>, <자진난봉가>, <사설난봉가>, <경북궁타령>, <개성난봉가>, <간지타령>, <배따라기>, <자진배따라기>, <도라지타령>, <수심가>, <수심가역금>, <공명가>, <영변가> 등이다.

이들 잡가집을 중심으로 잡가의 통시적인 측면과 공시적인 측면을 설명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일이 중요한 과제로 제기된다. 그 중에서도 관서 지역의 지명과 지역어가 빈번하게 사용되는 용례를 통하여 연행 현장의 맥락을 이해할 수 있는 방향을 살필 수 있다.

#### 4. 관서·관북 지역 시가 향유의 의미

##### 1) 작가층과 향유층의 문제와 범주 설정

관북과 관서의 시가 향유에서 드러난 작자층은 종2품의 감사(권맹손,

61) 『가곡보감』(평양, 기성권번, 1928), 『한국잡가전집』 4(계명문화사, 1984), 65~118면.

김정국, 주세붕), 종5품의 관관(임형수, 조우인), 일당백 무사(박계숙), 종4품의 만호(이지만), 정6품의 평사(백광홍), 영위사(이현), 막비(박사호), 자제군관(유인목), 무변(송계연월웅), 군사(갑민가), 광부(동점별곡), 기생(하고소, 금춘, 연연홍, 매화) 등이다. 이와 함께 귀양살이를 했던 조정의 문인관료도 중요하게 포함할 수 있다.

그리고 관북과 관서에서 지어지고 현지에서 향유된 것이 있고, 창작은 관북과 관서와 관련이 있는데 실제 독자층이나 향유층은 다른 지역인 서울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경우를 확인하였다.

이러한 사실에 근거할 때 관북과 관서의 시가에서 작가층과 향유층의 문제는 일단 분리해서 이해하되, 다른 지역의 경우와 어떻게 견줄 것인지 보다 종합적인 시각에서 새롭게 접근해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이해하고 있는 다른 지역의 시가 향유와는 다른 면모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생각할 수 있는 문제가 관서와 관북의 시가 향유를 통해 시가의 범주에 대해서도 새로운 시각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 <출새곡(出塞曲)>은 <입새곡(入塞曲)>과 함께 악부의 횡취곡(橫吹曲)에서 출발한 것인데, 곳곳에서 <출새가(出塞歌)>를 거쳐 조우인의 <출새곡>에 이르면 가사로 나타난다. 이렇듯 발생의 측면에서 같은 이름을 가지고 있으면서 실제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는 사례를 설명하는 준거가 필요하다. 아울러 <양양가(襄陽歌)>의 경우에도 이백(李白)이 지은 가곡을 가리키는데, 여기에 토를 붙여서 잡가로 부르기도 한다. 과체시인 <관산옹마>가 불리는 상황도 관심의 대상이다.

이렇듯 담당층과 향유층, 시가의 범주 문제는 새로운 과제로 풀어야 할 것이다.

## 2) 시가 전승의 주체와 매개

관북과 관서의 시가 향유를 살펴본 바, 관북의 경우 변세의 무장의 업무와 관련되거나 직접 무변이 시가 창작과 향유의 주도적인 역할을 맡고 있어서 무변<sup>62)</sup>이라고 범칭할 수 있는 집단이 시가 전승의 주체라고 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여기에 동참하고 있는 집단이 가기(歌妓)라고 할 수 있는 기녀 집단이다. 그런데 무변은 일정 기간 관북 등 북변에서의 임무가 끝나면 다시 서울이나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게 된다. 이런 과정에 북변에서 향유한 시가가 다른 지역으로 전승될 수 있고, 북변으로 부임하는 무변들이 자신들이 향유하던 시가를 북변 지역에 전승시킬 수도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기녀 집단은 직접 시가 창작과 향유에 간여하기도 하지만 시가 전승을 매개하는 역할을 맡고 있기도 하다. 그런데 이들 기녀 집단의 전문성의 여부는 구체적인 사례를 검증한 뒤에 논의해야 할 것이다.

한편 관서 지역의 경우 관리로 부임하는 문신이나 무반이 시가 창작과 향유에 참여하는 경우도 많지만, 다른 한편으로 조천이나 연행의 사행에 참여하는 인물들이 현지 관리들이 베푸는 공변된 위안의 자리에서 여악(女樂)을 즐기는 풍류가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다. 실제 이들 사행을 위하여 각 관아에 특별히 교방을 설치하고 대비하였던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들 자리에는 북변보다 훨씬 더 전문화된 가기(歌妓)가 주도적인 역할을 맡으면서 시가 향유를 이끌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들 가기(歌妓)는 여러 사정에 의해 서울을 비롯한 다른 지역으로 옮겨 가게 되면서 새로운 전승의 계기를 마련하기도 하였다. 다음과 같은 기록이 그 하나의 사례라 할 수 있다.

62) 시가 향유에서 무변의 위상을 주목한 것으로 권두환, 『송계잡록』과 <송계곡> 27수 및 <채련상사곡>」( 한국고전문학회 제252차 월례발표, 2010.1)의 제안을 참조할 수 있다.

예조가 아뢰기를,

“이번에 증묘에 고하는 대례에 교방가요(敎坊歌謠)와 정재(呈才)가 있어야 하겠기에, 평안도 기생 중에서 가사(歌詞)를 잘하는 향란(香蘭)과 문향(文香) 등을 각기 소속되어 있는 관청으로부터 올려 보낼 것을 이문하였습니다. 그런데 문향은 마침 서울에 와 있다가 전 전랑 허함(許涵)의 집에 피신하여 숨어 있습니다. 장악원에서 차관을 보내 찾았으나 허함은 문을 잠근 채 숨겨 두었고 일을 아는 종까지 보내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본원에서는 끝내 찾아내지 못한 채 본조에 이문을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큰 경사를 만나 창기(娼妓)를 두고 있는 사대부들이 허함을 본받아 내놓지 않는다면 대례(大禮)가 풀이 우습게 될 것입니다. 허함을 무겁게 다스리고 문향은 즉시 자수하게 하여, 법을 멸시하고 함부로 구는 습성을 징계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전교하기를,

“윤희한다. 사면을 받지 못하게 하라.”

하였다. (두 기녀는 다 관서 지방의 명창(名倡)이었다. 왕이 성기(聲伎)를 좋아하여 보고 싶어 하므로 예조가 뜻을 받들어 아부하느라 이렇게 아뢰는 것이다. 이때에 교방(敎坊)에는 여악(女樂)이 극성이었고 이를 경례 가요(慶禮歌謠)라고 말하였다. 이들이 서울에 모여들자 왕은 이름 있고 예쁜 여자만을 뽑아 대궐로 불러들여 온종일 가무(歌舞)를 즐기고 여러 날 밤을 내보내지 않자, 폐인(嬖人)들은 제각기 예쁜 기생을 데려다가 노래와 춤을 가르쳐서 궁중에서 베푸는 연회를 이바지하게 하였다. 사대부집의 여종들도 연줄을 따라 시연(侍宴)에 출입하였고, 진출을 피하는 사람도 모두 여종을 바치는 것으로 발판을 삼았다. 노직(盧稷)의 노비가 일찍이 대궐에 들어가 연회에서 모셨는데, 왕이 이르기를, “너의 주인 장준완(蔣俊琬)을 지금 첨사(僉使)에 제수하였으니 행하로 적당할 것이다.” 하였다. 여러 창기들도 다투어 은전을 빌어 관직을 팔기를 내폐(內嬖)나 친속들과 차이가 없게 하였으므로, 뇌물을 바치는 길이 더욱 많아지게 되었다.)<sup>63)</sup>

63) 『광해군일기』 119권, 9년[1617] 9월 8일(경오).

### 3) 조선후기 시가 향유와 관서·관북 지역 무변의 연관

조선후기 서울을 중심으로 무변들이 시가를 향유하는 현실에 대하여 공식적인 문제 제기가 있기도 하였다.

임금이 석강에 나아갔다. 강하기를 마치자 임금이 특진관 구성임을 앞으로 나오게 하고 말하기를,

“문과 무는 갈래가 다르니 문과로 진출한 자는 마땅히 문예를 숭상해야 하고 무과로 진출한 자는 마땅히 무예를 숭상해야 하는데, 듣건대 지금의 무관[武弁]들이 오로지 활쏘기와 말타기를 익히지 않고 심지어 시가를 읊조리며 세월을 보내는 자가 있다고 한다. 경은 장신이니 모름지기 이 무리들을 신칙하여 무예에 전념하도록 하고, 경도 또한 여러 장신들과 모여서 회사하는 것이 좋겠다.”<sup>64)</sup>

위에서 잠깐 문제 제기를 한 바와 같이 북변에서 잠행을 하면서 여러 가지 군사 문제를 해결했던 정충신(鄭忠信)이 지었다고 하는 시조가 가집의 첫머리를 차지하게 된 사정이나, 『해동가요』 「고금창가제씨」의 신분을 분석하여 확인한 바와 같이, 시가 향유에서 무변의 역할은 매우 크고 중대한 것이었다. 실제 「고금창가제씨」에 무변으로 밝혀진 사람들도 관서와 관북을 포함한 변경으로 나간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관서·관북 무변이 현장에서 가들과 함께 향유한 시가의 전승을 하나의 참조의 틀로 삼았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여기에는 관서·관북에서의 무변 체험을 한 사람들이 조정에서 정치적으로 큰 역할을 하면서 그들이 주도한 새로운 풍류의 측면도 점검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실제 장봉익(張鵬翼, 1646~1735)의 예에서 무인 출신의 난만한 풍류

64) 『영조실록』 53권, 17년 1월 23일, 『국역 영조실록』 17, 139면.

의 사례를 단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사간 조한위가 재변으로 인하여... 상소하였는데,  
 ...그런데 듣건대 훈련대장 장봉익(張鵬翼)의 생일 연회에 극도로 사치하  
 여 주육의 풍성함과 풍악의 성대함을 도성 사람들이 구경하기 위하여 인산  
 인해를 이루었다고 하니, 장신이 근심을 생각하지 않음은 진실로 해괴합니  
 다. 인하여 또 조관을 두루 초청하여 초헌이 문을 메웠고 밤을 지새워 연회  
 를 베풀었으며 기녀들의 가무가 현란했으니, 보고 듣는 자들이 부끄럽게 여  
 기지 않은 이가 없었습니다. 신의 생각에는 이런 방탕한 습관을 결단코 경책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 65)

그런데 장봉익은 다음과 같은 시조를 남기고 있어서 북새의 무변 체험  
이 그 풍류의 바탕이 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나라히 태평이라 武臣을 브리시니  
 날 곳튼 영웅은 北塞에 다 늘거다  
 아마도 위국 정충은 나쁜인가 흐노라  
 『병화가곡집』 406

게다가 『고금가곡』을 엮은 송계원월옹(松桂烟月翁)을 통해서도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서로와 북변의 무변 체험이 조선 후기 시가 향유에 일정  
하게 큰 역할을 담당했던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송계(松桂)와 연월(烟  
月)이 바로 무변 체험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인 셈이다.

65) 『영조실록』 39권, 10년 12월 25일, 『국역 영조실록』 13, 196~197면.

## 5. 소결

이 글은 관서·관북 지역의 시가 향유 양상을 살핀 시론으로 지역성, 담당층, 통시성 등을 준거로 검토하였다. 두 지역의 양상에 약간의 차이가 나타나는 것은 일차적으로 지역성에서 말미암은 것이지만, 서울과의 연결 고리와 그 이동 양상과도 밀접한 연관을 가지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관서·관북 지역 시가 향유에서 무변과 기녀의 역할을 매우 중요하게 살폈는데, 이는 조선후기 다른 지역의 시가 향유에서도 주목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이들 무변의 연행 현장과 그 현장에 동원된 기녀의 성격에 대한 보다 정밀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무변과 기녀의 이동에서 문화교류의 양상도 함께 다루어야 할 것이다.

특히 관서 지역의 경우 잡가의 연행과 전승에 대한 검토는 잡가 작품에 반영된 이들 지역의 물산과 언어에 대한 관심과 함께 새로운 과제로 살펴야 할 것으로 본다.

지금까지 확인한 자료를 바탕으로 관서·관북 지역의 시가 창작과 전승, 그리고 다른 지역과의 연관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가 진행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 참고문헌

『가곡보감』(평양, 기성권번, 1928), 『한국잡가전집』 4(계명문화사, 1984).

『광해군일기』

『국역 영조실록』

『선조실록』

『속수함산지통기(續修咸山志通紀)』(국립도서관 소장)

- 『신증동국여지승람』 권48, 『함흥부』, 『국역 신증동국여지승람』 VI.  
 『심전고』 제1권, 『연행록선집』 IX(민족문화추진회, 1977).  
 『平壤續志』一, 『邑誌』 14, 『평안도』①(아세아문화사, 1986).  
 南九萬, 『藥泉集』, 『한국문집총간』 132.  
 宋時烈, 『宋子大全』, 『한국문집총간』 113.  
 李石亨, 『栲軒集』, 『한국문집총간』 9.  
 李廷龜, 『月沙先生集』, 『한국문집총간』 070.  
 林亨秀, 『錦湖遺稿』, 『한국문집총간』 32.  
 曹友仁, 『頤齋集』, 『한국문집총간 속』 012.  
 현공림, 『신찬 고급잡가 부가사』(1916), 『한국잡가전집』 2(계명문화사, 1984).
- 권두환, 『『송계잡록』과 <송계곡> 27수 및 <채련상사곡>』( 한국고전문학회 제252차 월례발표, 2010.1)  
 김남기, 『『연원일록』에 나타난 가무악과 연희의 연행 양상』, 『국문학연구』 7호(국문학회, 2002), 199~235면.  
 김문기·김명순 편저, 『시조·가사 한역가전서』 1(태학사, 2009), 315~318면.  
 박애경, 『<춘면곡>을 통해 본 19세기 시정문화와 그 주변』, 『한국시가연구』 28집(한국시가학회, 2010), 297~325면.  
 소재영, 『정주가 논고』, 『국문학논고』(송실대출판부, 1989).  
 윤곤강, 『근고조선가요찬주』(생활사, 1947), 169~171면.  
 이상보, 『17세기 가사전집』(교학연구사, 1987), 276면.  
 이상보, 『한국고전시가연구·속』(태학사, 1984).  
 이수봉, 『구운몽후와 부북일기』(경인문화사, 1994), 270면.  
 이희승, 『조선문학연구초』(을유문화사, 1946).  
 임영정, 『관곡선생문집과 언문가사·시조』, 『도서관』 제29권 제3호(국립중앙도서관, 1974).  
 임형택, 『옛노래, 옛사람들의 내면풍경』(소명출판, 2005), 81~82면.  
 정렬모 편, 『가사선집』(조선문학예술총동맹출판사, 1964), 334면.  
 최재남, 『사립의 향촌생활과 시가문학』(국학자료원, 1997), 79~84면.  
 최재남, 『<훈민가> 보급의 경과와 그 의미』, 『고시가연구』 21집(한국고시가문학



회, 2008).

최재남, 「일석 이회승 선생의 고전시가 연구」, 『애산학보』 37집(애산학회, 2011), 258~259면 참조.

홍재휴, 『북행가연구』(효성여자대학교출판부, 1991).

ABSTRACT

A Study on the Aspects of Enjoyment of Siga at Kwanso and  
Kwanbuk Area in Chosun Dynasty

Choi, Jae-Nam

The aim of this article is to summarize the aspects of enjoyment of poems and songs at Kwanso(關西) and Kwanbuk(關北) area in Chosun Dynasty.

We are able to set up three category in research for the Siga of Kwanso and Kwanbuk, namely regional characteristics, class in charge, and the diachronic characteristics.

In chapter II, We are able to summarize Kwanbuk Siga, 1) being proud of birth place of King and 〈Frying dragon songs〉, 2) refinement of soldiers and kisaeng, 3) spread of 〈Cheollyungga(鐵嶺歌)〉, 4) itinerary of Kwanbuk, 5) lives of field, and 6) lived experience of exile.

In chapter III, We are able to summarize Kwanso Siga, 1) enlightenment of people, 2) itinerary of Kwanso, 3) itinerary of Beijing(北京) and refinement, 4) response to historical affairs, and 5) Seodojabga(西道雜歌).

In chapter IV, We are able to classify the characteristics of writing class and enjoying class, 1) local resident and stranger, 2) main group and mediator of transmission, and 3) movement of class in charge in late Chosun Dynasty, especially soldier and kisaeng.

**Key Words** Kwanso, Kwanbuk, Seoro, Bukbyun, enjoyment of Siga, regional characteristics, class in charge, diachronic characteristics, soldier, kisaeng, performance, refinement, itinerary, lived experience.

논문투고일 : 2011. 10. 15  
심사완료일 : 2011. 11. 30  
게재확정일 : 2011. 12. 05